

“다음은 오스카인가?”

# 영화 ‘기생충’ 美아카데미 수상 가능성 전망

제73회 영국 아카데미(BAFTA)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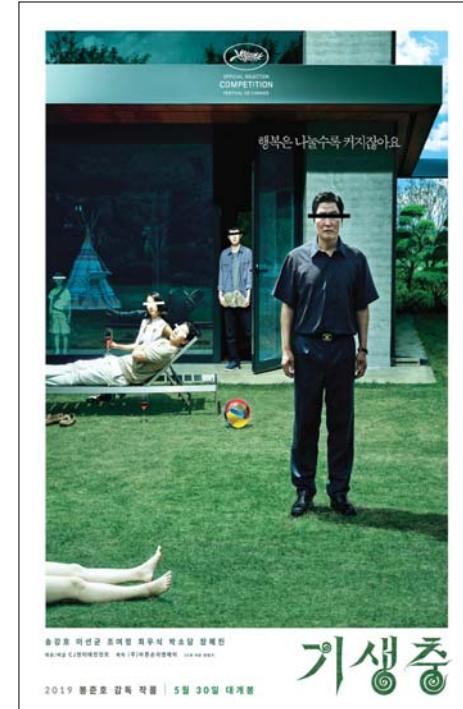
외국어영화상·각본상 수상…외신 관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작가 조합상(WGA) 각본상 받은데 이어 제73회 영국 아카데미(BAFTA) 시상식에서도 외국어영화상과 각본상을 수상, 제92회 미국 아카데미(オス카) 시상식의 수상 결과에 외신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기생충’은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72회 WGA에서 각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어 지난 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홀에서 열린 제73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과 각본상을 받았다.

이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3일(한국 시간) “다음은 오스카가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생충’의 이 같은 수상 결과에 주목했다. 포브스는 “‘기생충’이 WGA에서 ‘1917’ ‘결혼 이야기’ ‘나이브스 아웃’ ‘북 스마트’ 등을 제치고 최고상을 수상했다”며 “BAFTA에서는 ‘북 스마트’ ‘나이브스 아웃’ ‘결혼 이야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제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AFTA에 투표하는 많은 업계 인사들도 아카데미 시상식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BAFTA는 종종 노미네이트된 상태다.”



## ‘하이에나’ 김혜수X주지훈, 스페셜 포스터 공개

카리스마 대결



‘하이에나’ 김혜수와 주지훈의 막상막하 카리스마 대결이 시선을 압도하는 스페셜 포스터가 공개됐다.

SBS 새 금토드라마 ‘하이에나’(극본 김루리/ 연출 장태유) 측은 김혜수와 주지훈의 모습을 담은 스페셜 포스터를 3일 공개했다.

‘하이에나’는 머릿 속엔 법을, 가슴 속엔 돈을 품은 ‘똥묻겨꾼’ 변호사들의 물고뜯고 짖는 하이에나식 생존기를 그려드라마다.

공개된 스페셜 포스터에는 금방이라도 전쟁을 벌일 듯한 김혜수 주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다. 벽돌을 손에 쥔 김혜수와 그런 그녀의 멀을 살해해주는 듯하다. 그런가 하면 주지훈은 깔끔한 슈트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착용,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자란 엘리트 변호사 유희재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하이에나’는 ‘스토브리그’ 후속으로 오는 21일 오후 10시 처음 방송된다.

뉴스1

## 출판업계도 뒤흔든 양준일 신드롬…“초당 1부씩 팔린다”

‘펭수’ 에세이 판매량 앞지르기도…폭발적 반응



가수 양준일(51)의 에세이가 예약판매 개시 초반부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서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양준일 에세이 ‘양준일 MAYBE: 너와 나의 암호말’(모비딕북스)의 예약 판매가 개시된 가운데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늘고 있다.

예스24에서는 예판 시작 1시간 만에 4500부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알라딘에서는 10분 만에 판매량 1500부를 돌파했고, 인터파크에서는 1분 만에 500부 돌파, 1시간 만에 3000부 이상 판매되며 당일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교보문고에서도 오후 1시까지 3000부가 판매됐다.

송진경 알라딘 도서팀 차장은 “지난 11월 판매된 펭수 에세이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놀)와 비교할 때(1000부) 초반

판매 속도가 1.5배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화종 인터파크 문학MD는 “1분당 50부가 팔린 셈”이라며 “거의 초당 1부씩 팔리고 있다. 아침부터 예약판매 시작 시간에 대한 고객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양준일 에세이의 주 구매층은 주로 30~4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라딘에 따르면 주 구매층 평균 연령은 42세로, 40대 여성의 구매가 전체 구매의 45%를 차지했고, 인터파크 주 구매층은 30~40대 여성이었다.

‘양준일 MAYBE: 너와 나의 암호말’은 팬들의 소환으로 19년 만에 본격 활동을 재개한 ‘슈가맨’ 양준일의 첫 책으로, 양준일이 세상에 건네는 위로와 희망 그리고 진실, 어둠 속에서도 끝 빛을 향하는 그의 생각, 표정과 몸의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진을 담은 책이다.

책은 오는 14일 정식 출간되며 이와 관련한 북콘서트도 열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 “누구나, 말도 안돼”

신동, 30kg 감량 후  
증명사진 공개 ‘훈남’



그룹 슈퍼주니어의 신동이 30kg 감량 후 찍은 증명 사진을 공개했다.

신동은 3일 자신의 SNS에 “증명 사진 공개. 근데 누구나 말도 안돼”라는 글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분홍색 스웨터를 입은 신동의 모습이 담긴 증명 사진이 있다. 신동은 날렵한 턱선과 훈남 이목구비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신동은 지난해 10월 116kg의 체중에서 디어트를 진행, 3개월만에 30kg을 감량했다고 밝히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동이 속한 슈퍼주니어는 지난달 28일 정규 9집 리패키지 앨범을 발표한 후 활발한 활동 중이다.

## 슈퍼주니어, 주간 음반차트 1위…여전한 글로벌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새 앨범 ‘TIMELESS’(타임리스)가 국내 주간 음반차트 1위에 올랐다.

지난 1월 28일 발매된 정규 9집 리패키지 앨범 ‘TIMELESS’는 2월 첫째 주 기준(2020.1.27~2.2)으로, 한터차트와 신나라 레코드 주간 음반차트 1위를 기록해 음악 팬들 사이에 뜨거운 호응을 실감케 했다.

앞서 이번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인 QQ뮤직, 쿠워뮤직 유료 디지털 앨범 판매차트 1위에 오른 바 있다. 더불어 톤Ton비아, 싱가풀, 사이프러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대만, 과테말라, 멕시코, 칠레, 페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몰타, 엘살바도르, 이집트 등 전 세계 26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슈퍼주니어의 변함없는 인기를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새 앨범 ‘TIMELESS’는 지난해 10월 발매한 정규 9집 ‘Time\_Slip’, 스페셜 버전 ‘TIMELINE’을 잇는 ‘TIME’ 3부작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2YA2YAO’(아이아이 야오)를 비롯해 신곡 ‘악몽(Ticky Tocky)’, ‘Shadow (赤霞)’, ‘Rock Your Body’까지 총 14 트랙이 수록되어 슈퍼주니어의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다.

## 정준하, 유튜브 채널 ‘정준하의 소머리국밥’ 오픈

전통주 소믈리에로서 국내 전통주 산업 활성화 앞장…소통 예고



방송인 정준하가 유튜브 채널 ‘정준하의 소머리국밥’을 론칭했다.

3일 정준하의 유튜브 채널 제작을 담당한 레드선스튜디오는 “정준하가 유튜브 채널 ‘정준하의 소머리국밥’을 론칭했다”며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방송 복귀 소식을 알린 정준하가 선보일 새로운 콘텐츠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준하는 유튜브 채널 ‘정준하의 소머리국밥’이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과정이

담겼다.

해당 영상 말미에 정준하는 “‘정준하의 소머리국밥’은 과연 어떤 콘텐츠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채워드릴지 기대해 주세요”라고 전해 그의 방송 활동을 기다리던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방송인 정준하는 지난 2018년 MBC 예능 ‘무한도전’ 종영 이후 뮤지컬 ‘시티오브웨일’과 개인 사업, 전통주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국내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 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전문가이다. 1년에 6명만 선별되는 ‘전통주 소믈리에’로 당당히 발탁된 정준하는 지난해 말 농촌진흥청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소식을 전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또한 정준하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 KBS 2TV ‘해피투게더4’와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녹슬지 않은 입담을 과시하며 반가운 균형을 전했다.

특히 1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에서 정준하는 오랜만에 만난 유재석, 박명수와 옥신각신 케미를 선보이며 웃음을 자아냈고 유재석에게 론칭을 앞두고 있는 유튜브 채널명을 논의해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높였다.

이처럼 오랜만의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방송인 정준하기 호기롭게 출사표를 던진 유튜브 채널 ‘정준하의 소머리국밥’을 통해 선보일 새로운 콘텐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1